

“원전 운영·규제 시민감시 강화해야”

‘한빛원전 출력 급상승’ 계기 광주·전남 탈핵단체 좌담 폐쇄적 산업구조 운영·관리·규제기구 시민 감시 필요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출력이 급상승해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원전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14일 오후 광주 동구 YMCA에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원전의 운영·관리·감독·규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현재 원전 진흥·규제 정책에는 허점이 많다”면서 “원전의 운영실태와 안전성을 검증, 규제하는 감독기구의 활동은 폐쇄적인 산업구조 특성 상 운영업체인 발전사의 ‘셀프검증’에 가까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다. 제도적 허점을 배울 철저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안전규제의 시행과 지침 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자 역할은 ‘시민사회’가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전 운영업체와 감독기구는 원전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한빛원전 1원자로 출력 급증은 출력제한을 인지했는지 여부, 관리·운영체계, 제어봉구동장치 노후화 문제, 초기대응 적절성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명확한 조사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빛원전에서만 1호기 복수기 누설에 따른 발전정지, 냉각재 펌프 고장, 격납용기 철관 부식과 공극 발생, 증기발생기 주변 이물질 발견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면서 “설비 상 결함과 허술한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전문가로 꾸려진 별도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강화 ▲정부 감독기능 효율성 제고 ▲원전지역 주민과의 효과적인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빛원전 원자로의 가동 진여 수명 등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원전 폐쇄를 위한 연대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미흡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하늘 향해 두팔을 벌리고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차없는거리에서 열린 '제5회 UN세계여가의날' 행사 참가자들이 오가를 하고 있다.

법원 “성관계 장면 동의 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유사강간 또는 간음했다는 사유와 동의 없이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와 함께 2017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위는 파면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했다.

심사위는 검찰이 A 씨의 유사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한 점을 고려했다.

A 씨는 B 씨와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주장을 지속했다. 실제 A 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이 제시됐다.

A 씨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양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B 씨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비단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해임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춘정 기자

가스 공급 전 점검하다 폭발로 검침원 부상

광주지역 한 신축 아파트에서 정전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나 가스검침원 1명이 다쳤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동구 용산동의 입주자를 앞둔 한 아파트 2층 다용도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스검침원 A(45)씨가 얼굴·팔 등지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용도실 4㎡와 창문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폭발 직후 실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 자체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세대별 가스 공급에 앞서 가정용 LNG 가스배관에 차 있던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의 합성섬유 소재 조끼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된 불꽃이 밀폐된 공간 안에 가득찬 공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며 차털이 40대 구속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차털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14일 주차된 남의 차량에 들어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6시에 전남 담양군 대전면 길가에 주차된 모닝차량에 들어가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동안 나주와 전북 일대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절도혐의로 구속됐다가 1년 뒤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경비장치가 허술한 차량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다가는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평군청 1인 시위자 폭행 40대 남성 구속

합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합평경찰서는 14일 1인 시위자를 수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40분께 합평군 합평읍 합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39)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피켓을 통해 건설사 사장의 이름을 거론하고 비하해 순간적으로 화가나 때렸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때려 쌍방폭행으로 만들려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김광춘 기자

‘어린이집 앞 손도끼 난동’ 40대 구속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어린이집을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할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의 보호자로, 약을 건네주고 나오던 중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교사 1명과 문화센터 직원 1명도 머리 등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0시28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 10시36분 상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